

간절함이 아름다운 삶 만든다



법산 스님은 동국대에서의 25년간 한 번도 수행자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병이라며 '자등명 범등명(自燈明 法燈明)' 하며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자기를 비준하는데 '거울'을 예로 들어볼까요?" 스님은 거울에는 모든 것을 비추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 이유를 공(空)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울 보고 성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고맙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거울을 보고 그곳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칠 뿐입니다. 사실은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공덕을 받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거울은 형상이 없다. 단지 틀만 있을 뿐.

법산 스님은 다시 모래 이야기를 꺼냈다. "학문은 모래알 같으나, 모래 알갱이를 녹여서 첨단과학에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를 만든다. 강바닥에 널린 하얗은 모래가 지식의 저장장치인 반도체이다."

스님은 모래가 반도체가 되려면 자신의 몸을 녹여 환골탈태하는 고통이 따른다고 했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수행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게 있어 환경 변화는 수행의 새로운 전환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그랬고, 대만 유학길에 올랐을 때가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법산 스님은 던져진 환경에 충실하고자 힘썼다.

원융한 삶 속에서 스님은 학업을 이뤘고, 교수가 됐다. 수행을 했고 큰스님이 됐다.

"부처님이 대기설법하며 인기응변 한 이치를 보세요. 부처님은 타자(他者)와 동일성을 찾아 이끌면서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바꾸려 한다면 누가,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갈등과 고통만이 남을 뿐이지요."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라고 했다. 법산 스님

거울에 성내는 사람 없어

누구나 보고 고칠 뿐

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가르침을 얻는지가 평상심과 도를 논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알아차림(sati)도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 하라는 것입니다. 선가에서는 '성성적적(惺惺寂寂)' 혹은 '적적성성(寂寂惺惺)'이라고 말합니다. <영가집>에는 위빠사나를 성성적적으로, 사마타를 적적성성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 적적은 사마타(고요함, 止)를, 성성은 위빠사나(알아차림, 觀)를 말합니다. 순서가 어찌됐든 정혜쌍수(定慧雙修)해야 합니다."

법산 스님은 "학교에서 25년을 지냈어도 한 번도

수행자라는 생각을 잊은 적은 없다. 강의 역시 수행하러 들어가는 것"이라 말했다. 스님의 수업은 학부·대학원 수업할 것 없이 때 시작 전 죽비로 시작해, 수업의 끝을 죽비로 알린다.

스님은 "학생을 도반으로 생각하고 매 수업시간을 바로 정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것과 저것이 상의상존하는 연기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까닭이었다.

법산 스님의 지도제자는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인경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화랑 스님 등 박사만 10여 명이다. 석사과정은 셀 수 없이 많다.

법산 스님은 "내 앞으로 이름을 건 제자라고 해서 특별히 대해준 것은 없다. 내 강의를 듣고, 내게 배운 학생은 모두 내 제자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에게 제자들은 모두 나 아닌 '나'였다.

법산 스님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도철학을 섭렵할 것을 강조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서는 3·7·100일 기도하듯 새해 첫날은 기도로 한해를 열자고 당부했다.

"지난해까지 가졌던 생각을 확 뒤집어 인식을 바꿔봅시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새로운 생각 신심 옹기 지혜로 새해를 열면 한해가 분명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글=조동섭 기자 cestana@gmai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holo@hanmail.net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3



돌아보는 아미타불상과 요칸(永觀)

교토에서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사원 가운데 한 곳이 영관당(永觀堂)이다. 영관당에는 '돌아보는 아미타불상'이 본존으로 봉안돼 있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먼 옛날 한 노인이 궁궐에 진상했던 아미타불상이 있었다. 궁궐에서는 동대사 개창 때 이 불상을 하사했고, 동대사에서는 이 불상을 실내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다. 영관당을 찾았던 요칸(1033~1111)이 우연히 이 불상에 예배했다.

그 순간 불상이 안치된 실내 깊은 곳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요칸은 "중생제도야말로 부처님의 본원이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한탄했다. 요칸의 이러한 생각이 왕에게 알려졌고, 왕은 요칸에게 불상을 모시게 했다. 요칸이 불상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 동대사 최고직인 별당(別堂) 자리를 놓고 불상을 등에 얹었다. 요칸이 동대사를 떠나려 할

사찰에 침거해 염불행에 몰두했다. 이후, 선림사에 주석하면서부터는 정토교의 민간포교에 전념했다. 요칸은 이 외에도 경내에 약왕원(藥王院)을 설치해 중생구제 활동에도 앞장섰다. 마음의 치유와 육신의 치료를 병행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선림사에서는 일본 최초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광원(顯光院) 등 근대식 의료원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영관당의 돌아보는 아미타불상, 12세기

요칸은 한 때, 죽음을 순간에 고통 없이 바로 왕생에 이르는 순차(順次) 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탐 안에 불사리 2과를 발원문과 함께 넣어두었다. 이듬해 탐을 열어보니 사리는 4과로 늘어나 있었다. 요칸은 자신의 원이 이뤄졌음에 환희를 약하며, 4과의 사리 중 2과를 본존의 미간에 모셨다.

요칸은 아미타불이 임종자를 극락정토로 내영인접(來迎)하는 모습을 연기하는 '영접법'을 대중에게 선보여

불상은 중생 위해 고개를 돌리고

요칸은 염불 왕생 근거 10가지 정리

때였다. 한 승려가 이를 막고자 불상을 요칸에게서 떼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불상은 등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요칸은 무사히 선림사로 불상을 옮길 수 있었다.

요칸이 50세 되던 해 어느 날 새벽이었다. 요칸은 불당에서 불상 주위를 돌며 염불을 하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불당에서 내려온 아미타불상이 그를 앞장서며 같이 돌았다. 요칸이 놀라서 멈춰서는 순간, 불상이 왼쪽으로 얼굴을 돌려 바라보며 "요칸, 늦었어"라고 말을 건넸다. 요칸은 자비심 깊은 아미타불의 이 모습을 말세에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자세를 그대로 간직한 불상을 봉안하게 됐다.

불상에서는 자신을 친견할 수 없는 중생들을 위해 손수 염으로 얼굴을 돌리면서까지 늦어진 불연(佛緣)을 기다리는 아미타불의 연민과 자비심을 느낄 수 있다.

요칸은 11세에 동대사에 출가해 삼론·법상·화엄학을 공부했다. 18세부터 매일 1만 편 씩 염불을 하다가 30세 무렵에는 교토 근처의 한

많은 사람들을 정토신앙에 귀의케 했다. 그는 이를 체계화시켜 왕생강식(往生講式) 및 왕생습인(往生拾因) 등 여러 저술을 남겼다. 왕생습인은 비록 짧은 글이지만 염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논거를 10가지로 들었다. 그 10종의 공덕은 광대선근(廣大善根), 중죄소멸(衆罪消滅), 숙연심후(宿願深厚), 광명섭취(光明攝取), 성중호지(聖衆護持), 극락화주(極樂化主), 삼업상응(三業相應), 삼매발득(三昧發得), 법신동체(法身同體), 수순본원(隨順本願)이다. 아미타불 명호에 만 가지 공덕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본원에 수순해 왕생할 수 있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가 지은 부처님 찬탄의 석교가(釋教歌) 가운데 "과거의 세상에 나는 아미타불과 어떠한 숙연이 있어 지금 아미타불을 모시는 몸이 된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서 보듯 요칸은 불연의 감사함을 뻗속 깊이 간직한 삶을 살았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송총림 수덕사

방 장 雪 靖
주 지 翁 山
사 부 대 중 일 동

■ 부설

노인요양원 템플스테이
근역성보관 선 미술관
수덕사 불교대학 승가대학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 8교구 본사

직 지 사

조 실 영 허 녹 원 대 종 사
주 지 성 응

대 중 일 동
www.jikjisa.or.kr

